

현대정유

디지털시대의 최강자로 거듭나는 현대정유 오일뱅크



김성우

〈현대정유주식회사 홍보팀장〉

석유회사는 기간산업으로서 국가경제발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국내 정유회사들의 현재 추진사업과 21세기 사업방향울 소개하여 독자들의 정유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회원사리뷰를 연재하고 있다. <편집자주>

현대정유는 인천정유(구 한화에너지)의 인수와 함께 디지털시대의 필수코스인 인터넷 사업부문 진출로 온·오프라인의 통합을 통한 21세기 초인류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아래 전 임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에 입각해 다양하고 활발한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유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오일뱅크

현대정유는 1999년 9월1일, 인천정유(구 한화에너지)를 인수해 석유시장의 국제화와 자유화시대에 대비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유소 수가 2,300여개로 증가했으며, 전국적인 주유소 서비스망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수도권지역의 시장을 강화함으로써 선발정유사들과 동등한 경쟁관계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현대정유 대산공장과 인천정유의 생산시설을 통합운영함으로써 생산의 효율화를 기했고, 원유의 구매나 저장시설의 통합운영으로 비용과 물류측면에서 큰 시너지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정유는 인천정유의 인수를 더불어 아랍에미레이트(UAE)의 국영 석유회사인 IPIC사로부터 외자유치에

성공함으로써 재무구조 건실화와 원유도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선진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

활발한 전략적 제휴로 경쟁력 강화

현대정유는 디지털시대를 선도한다는 취지 아래 인터넷사업부문에 대한 활발한 투자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월 29일 국내 11개 대표기업(현대정유,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카드, 아시아나항공, 인터파크, 하나로통신, 현대산업개발, 현대해상화재, LG투자증권, LG텔레콤)이 공동으로 허브(Hub)사이트를 출범시키기 위한 조인식을 체결함으로써 인터넷을 매개로한 이질적인 대기업간의 제휴로 화제를 모았으며, 그 결과로 지난 6월 9일 독립법인 회사인 디지털랭크(www.digital-rank.com)를 출범시켰다.

지난 3월 7일에는 제이디코리아닷컴(www.jdkorea.com) 및 국내의 분야별 대표기업인 아시아나항공, 롯데쇼핑, 한국통신 프리텔 등 11개 기업과 함께 마일리지교환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고객들이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 빠르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중심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

또한 오토마트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인터넷과 주유소의 결합을 통한 중고차 매매시장에 진출하고, 한국통신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등 활발한 온·오프라인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정유는 21세기에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은 온·오프라인이 조화를 이루는 기업이라는 확신으로 양자의 통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카드마케팅의 활성화

현대정유는 1999년 오일뱅크보너스카드를 출범시켜 이미 200만명에 이르는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포인트에 따라 생활용품과 보험, 해외여행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회원을 대상으로 정동진 해맞이 행사, 어린이 청학동 체험, 효도관광, 래프팅 등의 월별 이벤트를 마련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주유결제기능을 갖춘 현대오일뱅크카드를 통해 회원들에게 할인혜택을 주고 있으며, 오일뱅크 보너스카드와 함께 사용할 경우 보너스 포인트도 부여받으면서 주유금액도 할인 받는 1석2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밖에 국민카드, 외환카드, 삼성카드, 현대자동차, 축협 등과 제휴를 맺고 제휴카드를 발급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다.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현대정유는 모터스포츠의 불모지였던 국내에 지난 1995년 '오일뱅크레이싱팀'을 창단, 국내 모터스포츠의 프로화시대를 열었다. 창단 이후 오일뱅크레이싱팀은 국내 모터스포츠의 부흥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레이싱카에 대한 선진기술 습득과 전문정비사 및 카레이서의 양성에 노력하는 등 지금까지 한국 모터스포츠의 발전과 대중화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히 지난 1999년까지 한국모터챔피언십시리즈 4연패라는 위업을 달성하며, 국내 최고의 명문 레이싱팀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또한 현대정유는 국내에서 비인기 종목인 아이스하키

에서도 지난 1997년 '오일뱅크스팀'을 창단해 국내의 아이스하키 대중화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내 대학의 아이스하키팀들에 대한 지원도 계속하고 있다.

현대정유는 이런 스포츠분야의 경험을 토대로 스포츠 마케팅을 도입해 나갈 방침이다.

미래와 인간을 생각하는 기업

현대정유는 '미래를 생각하고 인간을 생각하자'라는 모토 아래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선 현대정유는 계열 주유소를 통한 백혈병 어린이 돕기 헌혈증서 모으기 캠페인, 유니세프후원 등 다양한 사회봉사 및 사회단체활동을 벌이고 있다.

다음으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해 해마다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청소년을 위한 드림콘서트'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5월20일(토),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8만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6회 '청소년을 위한 드림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마음껏 그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 드림콘서트는 단일 규모의 콘서트로서는 국내 최대의 규모와 권위를 자랑하며, 공연문화의 새장을 열어가고 있다.

또한 현대정유는 매년 12월과 1월에 아마츄어 스키대회인 '조이화이트'를 개최하고 있다. 조이화이트는 국내 스키의 대중화를 위한 것으로 순수한 아마츄어 스키어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는 국내 최대의 스키축제이다.

마지막으로 현대정유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오토영화제 '칼라어클락'을 봄·가을로 개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여름 휴가철을 이용해 해변영화제 '씨네드림'을 열어 가족단위의 피서객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고 있다.

현대정유는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좋은 품질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영속하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업에게 맡겨진 사회적 책임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 🍀